

白根旭 編譯

# 「中共石油」



**中共석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 中共 동북지방의 大慶油田이 발견되면서 부터이다. 이 유전의 산유량은 현재 세계 8위로 중공 총산유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美中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서방세계의 中共석유에 대한 관심은 내륙지방보다는 해안지역에 쏠리게 되었다. 中共해안은 발해만, 황해, 동지나해, 남지나해에 걸쳐 광대한 대륙붕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전세계 대륙붕의 1/20에 달하는 것이다.

中共당국은 자국의 해저석유매장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자료를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日本과 공동개발을 추진중인 발해만의 경우만 해도 80억톤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저유전개발은 현재 美國, 日本, 英國, 프랑스 등 10여개국의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이 中共측과 합작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시추성과가 외신을 타고 간간히 들리곤 한다.

中共석유는 생산면에서 볼 때 아직은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나, (1986년 기준 세계총생산량의 4.4%) 매장량 추정을 기초로 한 잠재력으로 보면 장차 무시할 수 없는 石油강국으로 부상하리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외국어대학교 中東문제연구소의 白根旭연구원이 편역한 「中共石油」은 中共의 石油자원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중공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끌만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1부에서 中共석유의 잠재력, 그리고 내륙 및 해저유전의 개발추이와 전망을 소개한 데 이어, 제2부에서는 韓國, 臺灣, 日本,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의 대륙붕관련문제를 소상하게 다루었고, 끝으로 韓國의 입장에서 본 中共석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편역자가 이 책을 펴낸 의도는 결론부분인 'III 한국의 선택 대안 : 中共石油'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石油정책은 향후 중공석유를 염두에 두고 지정학적, 정치적으로인까지를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일, 이차 석유과동 등 국제적 시각하에서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中共붐이 일어나면서 관련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中共의 풍부한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과 관련하여 서방측에서 발간되는 자료도 꽤 많아졌다. 최근에는 IMF, IBRD같은 기구에서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 현지방문을 통해 분석한 자료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中共石油」의 발간은 우리기업의 對中共진출에 도움을 주고 관련분야의 연구축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中共의 석유분야와 관련하여 최근의 장단기개발계획수립실태, 외국기업과의 협력동향 등이 덧붙여 졌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다른 자료에서도 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분야의 업적이 축적되는 가운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産業研究院, 特殊地域室 責任研究員 韓光洙)